자율준수 의지 메시지

안녕하십니까? 세아특수강 대표이사 이강현입니다.
세아특수강의 품질과 기술력을 믿고 구매해주시는 고객사 여러분, 회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장해온 협력사 여러분,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세아특수강 임직원 여러분!

2024년 새해를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, 벌써 1분기가 지났고 이제 우리의 시간은 4월을 향해있습니다. 올해 임직원 여러분께서 설정하신 목표들이 끝까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 봅니다.

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, 당사와 세아메탈이 합병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재무적 시너지 창출을 통하여 회사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, 이러한 외적인 성장이 회사의 경쟁력을 판단하는데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.
지금은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준법경영, 더 나아가서 사회적, 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ESG 경영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들이 회사의 경쟁력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.

세아그룹은 준법경영을 전사적 핵심가치로 선포하였고, 회사도 그룹의 준법경영 체계 및 문화 확산 기조를 준수 하고자 “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산업안전·환경법, HR관련 법령, 3대 무관용 정책”을 관리하기 위한 점검 프로세스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원년의 해가 되고자 합니다.

임직원 여러분,
흔히 컴플라이언스를 설명할 때, ‘빙산의 일각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.
즉,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들이 나중에는 점점 더 커져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2024년 4월
세아특수강 대표이사
이 강 현

SeAH 세아특수강